



안전보건을!  
현장과 현실은  
직시하다

3월 중순, 노란 개나리꽃이 살짝 눈을 뜰 때, 때 아닌 폭설로 계절은 다시 겨울로 돌아가려는 모양이다. 이른 아침 기차에 올라 차분히 숨을 고른다. 저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오른 사람들, 제법 쌀쌀한 날씨에 겨울 옷차림을 하고 의자에 깊숙이 앉아 휴식을 취한다. 창밖 풍경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훌쩍 시간이 지나 어느새 기차는 포항역에 도착했다.

영남산업주식회사 민인득 안전관리자  
취재 | 임재근 기자

**안전경영대상에 빛나는 영남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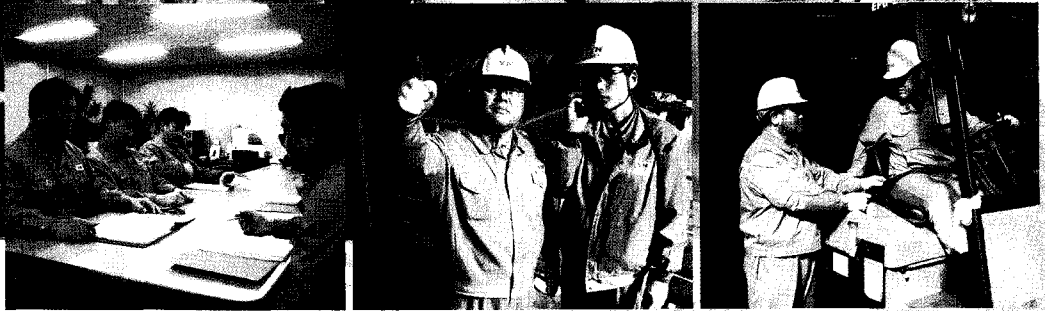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포항철강관리공단 내에 위치한 영남산업주식회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압연부에서 냉연공장 및 STS계강공장의 조업 지원과 수출/내수Coil의 관리, 출하, 검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체계적인 안전경영방침을 바탕으로 2002년 무재해 10배 달성, 2003년 안전부분 석탑산업훈장, 2009년 12월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하였다. 안전에 있어 이렇듯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영남산업은 매출이 큰 대기업이 아니다.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안전만큼은 대기업 못지않은 이곳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민인득 안전관리자, 올해로 30여 년을 철강업에 종사해온 그만의 노하우와 노력이 지금의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현장의 베테랑에서 안전 베테랑으로...**

올해로 스물여섯의 민인득 안전관리자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냈다. 학업을 마치고 바로 군 복무를 하였고, 1980년 스물여섯의 나이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처음 입사하여 철강제품 관리창고의 제품적재파트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30여 년간 철강과 인연을 맺고 있다. 그가 입사한 80년대 초반, 산업안전에 대한 개념이 막 싹트기 시작한 당시에는 안전보다는 품질이나 생산이 우선되던 때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그로 하여금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그가 안전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2년 20여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영남산업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작업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기에 작업에서의 위험을 개선하고, 근로자들



오른쪽부터 이현기, 김민호, 김영호, 원희철, 김민호, 김영호, 원희철, 김민호, 김영호, 원희철



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자로 그보다 더 적합한 적임자는 없었다.

### 안전, 돌이켜 보면 고달팠던 삶, 하지만 큰 선물

안전업무 맡은 지 1년여가 지나 안전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익혀나갈 즈음 그에게 닥친 큰 시련, 바로 재해였다. 영남산업은 그 동안 무재해 10배를 달성하고 안전부문 석탑훈장까지 받은 터였다. 그가 안전을 맡고 11배수 직전에 재해가 발생하여 목표가 좌절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큰 재해가 아니어서 간단한 수술을 받고 근로자는 퇴원할 수 있었지만 안전업무를 담당하던 그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고이후 더욱 자신의 일에 매진하게 되었고 영남산업의 모든 근로자 또한 확고한 안전의식을 다져 안전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그는 STOP기법, 잠재위험발굴, 제안활동, 위험성평가 등 다양한 안전관리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였으며, 현장에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전보다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렇게 8년여가 지난 2009년 12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안전경영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며 그와 영남산업의 임직원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되었고, 무재해 또한 2,800여일을 달성하며 6배 달성, 7배를 행하고 있다.

### 안전,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다..

안전보건활동의 전개에 있어 그는 기업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관리감독자들의 책임에 따른 역할 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 직원이 동참하는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영남산업의 임원들이 모두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결정해 주었던 것은 그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말한다. 또 현장의 잠재위험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가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제안 활동과 아차사고의 사례 등을 전 사원이 공유함으로써 사소한 사고가 중대재해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앞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은 짧지만 그의 안전에 대한 열정은 아직도 신입사원 못지않다. 앞으로 잠재위험발굴 사례 발표대회, 우수 안전제안 발표대회 등을 통해 각 현장에서의 안전활동을 상시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안전보호구 착용, 핸드레일 잡기 등의 10대 안전행동준수를 통하여 휴먼에러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습관화 운동을 전개와 실천에 매진할 예정이다. 영남산업의 전 근로자가 혼연일체가 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무재해 사업장의 명성과 안전의 최고 메카로서 철저한 안전보건관리활동을 펼쳐나갈길 기대해 본다. ☺